생명의숲

숲과 사람들

회원이 만드는 소식지

NO. 35
2015 May

CONTENTS

생명의숲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얼굴들 | 연구소 창립
생명의숲 이야기 소나무 재선충병 이야기
사무처 일기 신입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생명의숲 신임 이사장 이돈구 입니다.

이사장 이돈구

아름답고 희망찬 봄을 맞아 건강하시고 발전하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18일에 개최된 제18차 생명의숲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동안 김후란 이사장님과 전영우 이사장님께서 잘 이끌어 오신 생명의숲을 제가 이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온 회원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온 '생명의숲 국민운동'이기에 매년 발전하여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상기후와 개발로 많은 숲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숲을 건강하게 가꾸고 숲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숲은 온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누구 한 사람, 한 단체의 노력으로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시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 심고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통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는 고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훼손된 자연환경,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는 것은 결국 '숲'이라 믿습니다. 숲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파트너십의 정신을 찾아가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생명의숲'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의숲'은 1998년 숲가꾸기 운동을 시작으로 숲을 사랑하는 시민, 정부,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파트너십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생명의숲' 운동을 함께 해 온 많은 분들의 정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파트너십의 가치가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숲의 마음을 이어받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어줄 수 있는 '생명의숲' 운동이 되길 바라며 묵묵히 '생명의숲'에서 희망을 가꾸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의숲은 건강한 숲 공동체를 꿈꿉니다.

생명의숲 2015년의 새로운 변화

2015년에는 생명의숲에 새로운 얼굴들이 함께 하며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 이돈구 영남대학교 석좌교수

신임 사무처장 유영민

늘 그렇듯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생명의숲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숲과 함께 사회와 호흡하며 17년의 시간을 채워 왔습니다. 많은 선배 활동가와 회원님들의 땀과 노고의 결과 현재의 생명의숲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숲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는데 회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회의 변화

이돈구 영남대 석좌교수
마상규 한국산림기술인협회 회장
지영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김재현 건국대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진용주 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최해원 영일회계법인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대표
박명순 춘천생명의숲 대표
박재인 충북생명의숲 대표
정옥길 울산생명의숲 대표
김선규 문화일보 부장
노만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필선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사지원 건국대 연구전임교수
송인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용 수문출판사 대표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
김석권 前국립산림과학원 생산기술연구소 소장
김인호 신구대 교수, 서울그린트러스트 운영위원장
배상원 前국립산림과학원 수토보전연구과 과장
엄대식 동아오츠카 사장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우종민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춘만 호서대 교수(前 이건산업 사장)

운영위원회의 변화

김재현 건국대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김철영 에코펌 팀장
김한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김혜숙 숲지기 강지기 대표
손용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우수영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이수현 생명의숲연구소 부소장
이재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이재현 前 United Way 국장
정용숙 생명의숲 사업국장
채 일 수프로 대표

감사의 변화

진용주 계명대 교수
최해원 회계사

2015년 신입 회원의 한마디

김기림 – 기부하는 후원금이 숲을 위해 잘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양숙 – 잘 자라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배미경 – 대학생 때 정회원이었다가 취업준비하면서 자금 사정으로 탈퇴했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인이 되서 정회원으로 다시 가입합니다! 숲을 잘 가꿔 주세요~

이경희 – 늘 자연과 숲, 나무나 넓은 의미의 야생화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더불어 배우고 싶습니다.

이혜성 – 숲이 건강해야 우리 인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고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핀란디아 – 푸른 지구를 물려주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국 숲운동의 씽크탱크,
생명의숲연구소 창립

지난 3월 18일은 생명의숲 창립 17주년이 되는 날로서 제18차 정기 회원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생명의숲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숲운동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생명의숲연구소〉의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개최된 날입니다. 생명의숲 회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의숲연구소의 활동 방향과 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헌신적 참여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생명의숲 운동

생명의숲 운동은 창립 초기부터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참여에 기반 한 활동들을 전개해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 활동을 비롯하여 숲운동의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 현장 운동 진행 상황에 대한 자문 등 많은 전문가들의 활약이 생명의숲 운동의 현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들의 참여가 줄어들며 생명의숲 운동이 다소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성과를 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연구할 수 있는 틀로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숲정책 연구 플랫폼〉 생명의숲연구소

이번에 창립한 생명의숲연구소는 〈민간 숲정책 연구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숲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숲정책 및 숲운동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현장 활동에 적용하며,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여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숲정책과 숲운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토론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물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함으로써 숲정책과 숲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된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수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 활동의 효율화와 연구기관들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생명의숲 운동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숲가꾸기 사업, 학교숲을 비롯한 도시숲 운동, 숲길, 마을숲, 숲교육, 시민참여 등 지난 18년 간 생명의숲은 우리 사회의 숲 관련 정책 아젠다들을 제안하고 정부 정책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연구소를 통해 그 간의 운동 성과들을 재정리하고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생명의숲연구소는 숲정책과 숲운동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글. 생명의숲연구소 부소장 이수현 forestfl@naver.com

냉정한 시선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바라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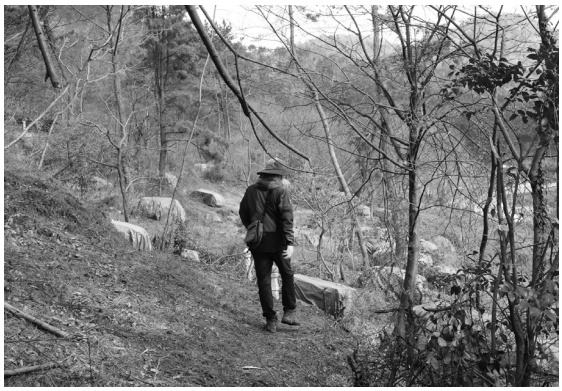
글. 생명의숲 사무처장 유영민

❖ 서울 남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다. 남한에서 소나무가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 2014년 220만 본에서 2015년 130만 본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소나무재선충병의 맹위는 여전하다. 킬러 본능을 가진 소나무재선충은 말 그대로 소나무 킬러다. 제주도는 작년에 이어 섬 소나무의 10%가 고사하였고, 최근에는 잣나무에까지 번져 광주, 용인, 남양주, 춘천, 양평 등 중부지역도 피해가 극심하다.

❖ 2005년에도 그랬듯이 정부는 완전방제를 목표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언론은 연일 소나무 위기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한반도 소나무 멸종'을 키워드로 정부를 나무라며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현장 작업자들은 높아진 피로감에 휩싸여 있고 전문가들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소나무 포기론이 퍼지고 있다. 완전방제는 불가능하므로 꼭 지킬 곳만 지키고 자연에 맡기자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앞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 방제 시나리오가 보일지도 모른다. 2005년 56만 여 본을 정점으로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라는 강력한 제도정책 추진과 정부의 집중적인 방제로 2010년 13만 여 본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1년 47만 본, 2012년 50만 본, 2013년 220만 본으로 다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전후로 정부와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클린선언을 했다. 앞으로도 이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정부는 완전방제를 목표로 할 것이고, 일정 수준으로 확산추세가 낮아지면 슬며시 손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또 확산되며 또 다른 정점을 찍을 것이고 언론은 난리치고 정부는 방제사업에 몰두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소나무재선충병 외에도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 우리 산림생태계를 위협하는 병해충이 많다.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는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피해를 반복하여 주고 있다. 특히, 중부지역의 참나무시들음병은 그 피해가 막대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처럼 딱히 대안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가? 바보 같은 질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정상인지도 모른다. 자연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은 완전방제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방제의 목표를 완전방제가 아니라 최소 인력과 예산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산속도와 밀도를 낮추는 것으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잠시, 전쟁 같은 방제에서 한 발 물러나 소나무재선충병 현상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기를 제안하고 싶다. 산림병해충의 생태적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섣부르지 않은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안은 소나무의 한반도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사람들의 절대적인 소나무 선호도가 무리해서 방제를 지속할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방제가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전제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프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수 있음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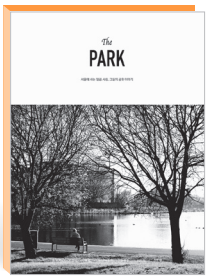
❖ 끝으로,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재선충병으로 죽은 소나무를 훈증처리한 더미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이야기

이명덕 회원기자 cokid1@naver.com



The Park 더 파크

차우진 외 지음 / 어라운드 펴냄 / 2015년 4월

서울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많이 있다. 공원을 찾는 이유와 즐기는 방식은 각자 다르겠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원을 바라보고 즐기는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각 공원의 특색이 나의 감성과 추억과 꿈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책이 주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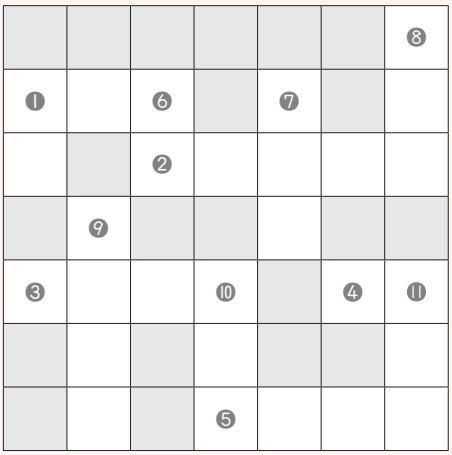
에콜로지스트 가이드 푸드 / 패션

앤드류 웨이슬리, 루스 스타일스 지음 / 정수진 옮김 / 도서출판가지 펴냄 / 2015년 3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음식과 옷에 대한 윤리적 소비를 위한 두 권의 안내서이다. 세계 최고의 환경잡지인 "더 에콜로지스트" 는 통념이나 보편적인 행동에 이의를 제기해 환경 이슈를 알리고 각자 사는 지역에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발행되는데, 이 책도 같은 목표로 기획했다고 한다. 가장 친환경적으로 알고 있는 면섬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 줌으로써 "생태학적 태도", -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철학적 태도- 그리고 지구와 인간 모두를 위한 방식에 대해 생각하도록 해주는 책이다.

초록퍼즐

◎ 출제 안민자 회원기자 amj138612@naver.com



가로

① 서울둘레길 2코스 중에 산성도 있는, 온달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오는 산
② 따뜻한 성질이 있고 쓰고 매운맛이 나며 음탕한 양이 먹는다하여 음양곽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③ 마음을 다해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며 나무를 꼬옥 안아주는 캠페인 운동
④ 그림이나 사진을 모아 실물 대신 볼 수 있도록 엮은 책
⑤ 소가 이 나뭇잎을 무척 좋아해서 소쌀밥나무, 선조들은 부부금실을 좋아지게 하는 애정목이라 함.

세로

① 생명의숲이 15년간 개최해온 00다운숲전국대회
⑥ 심마니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것
⑦ 어릴 때는 주로 수중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면 육상에서 생활하는 양서류의 하나
⑧ 인공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
⑨ 고르게 높이 자라는 특성이 있어 거리를 오리마다 표시하기도 했다는 나무.
⑩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때는 가장 길고 낮이 되며 길이가 짧아지는 것
⑪ 잎은 글을 쓸 수 있고, 가지는 화살로 쓰고, 노인도 즐기는 홍시가 되고 등등 오덕을 가진 나무

옆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정답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⑪의 첫 글자와 ⑤번의 첫 글자의 조합은?

지난 34호 정답 : 오이

장미과 갈잎큰키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Maxim.)E.H.Wilson

하얀 눈처럼 아름다운 – 벚나무

글. 박양수 숲해설가

왕벚나무

봄이 오면 산천에 초목들이 기지개를 켜고 하루가 다르게 생명을 불어넣고 새롭게 단장을 한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화사한 봄옷을 입고 나들이 가고 유치원생들은 노랑 옷을 입고 봄맞이로 개나리를 보러나가면 봄은 성큼 우리 곁에 와있다. 개나리꽃이 만발하면 뒤질세라 남쪽지방부터 벚꽃 소식이 전해온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하얀 꽃 대궐로 바뀌면서 여기저기에 축제가 벌어지고 상춘객들은 벚꽃을 보러 거리를 나온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진정한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있다. 벚꽃은 오래 피어있지 않고 며칠 못가 지고 말기 때문이다. 백색의 꽃 잔치가 끝나면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우리는 활기찬 봄을 맞이한다.

벚나무의 어원에 대해 고어표기를 (벋, 벗)으로 표기 했는데 벋→벗→벚으로 말음변이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는 설이 있고, 벚나무의 열매가 버찌(櫻實)로 1481년에 나온 '두시언해'에는 '멎'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멎→벚으로 순음변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

벚나무는 장미과, 갈잎 큰키나무로 꽃잎은 5장, 우리가 즐겨먹는 열매인 버찌 과육 속에 씨가 1개 있다. 잎자루에는 대개 2개의 꿀샘을 가지고 있어 개미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지만 속셈은 잎에 진딧물을 잡아 달라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

벚나무속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확하게 동정 하려면 루페를 가지고 털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벚나무는 '왕벚나무'로 잎이 나오기 전에 산형꽃차례로 피는데 꽃자루와 암술대 밑 부분에 털이 있다. 제주도를 자생지로 보며 주로 공원, 가로수로 심어져있다. '벚나무'는 낮은 산지에서 볼 수 있으며 잎과 꽃이 함께 피는데 꽃은 산방상총상꽃차례로 피고 꽃, 자방, 암술대에 털이 없다. '잔털벚나무'는 낮은 산지에서 잎과 꽃이 함께 피는데 꽃은 산방상 총상꽃차례로 피고 잎 뒷면, 잎자루, 꽃자루에 털이 많다. 우리가 흔히 야산에서 말하는 산벚나무는 벚나무이거나 잔털벚나무 일 수 있다.

'산벚나무'는 백두대간의 높은 산에서 볼 수 있으며 산형꽃차례로 작은 꽃자루, 자방, 암술대에 털이 없고 꽃자루는 짧다. '올벚나무'는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고 잎과 꽃이 함께 피는데 꽃받침통이 항아리처럼 부풀어 쉽게 동정할 수 있다. 이렇듯 벚나무 동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피면 왕벚나무, 산에서 잎과 꽃이 함께 피면 산벚나무로 불리지만 잘 못 알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벚나무 꽃이 없을 때 쉽게 동정하는 방법은 수피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보통은 피목이 세로로 발달하는데 벚나무의 피목은 가로로 발달하여 마치 칼로 베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벚나무류의 용도를 보면 팔만대장경에 산벚나무가 사용되었고, 껍질은 진해와 해독작용에 사용하고, 열매는 버찌로 식용을 하지만 실제를 과실주로 먹고 있다. 시장에서 사먹고 있는 체리는 서양에서 식용으로 개량하여 재배한 벚나무이다.

왕벚나무는 지형이 높은 곳에 자라는 산벚나무와 그보다 낮은 곳에 자라는 올벚나무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란 설도 있으나, 제주도와 전라남도 대둔산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특산종이다. 한때 일본의 나라꽃이라 하여 베어지는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일본에는 왕벚나무 자생지가 없으며, 순수한 우리나라의 특산종으로서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왕벚나무가 도입되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벚나무의 자생지하면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육지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나무가 있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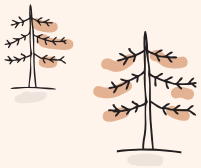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제173호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대흥사 뒤편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2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나이는 알 수 없으며 큰 나무의 높이는 15m, 작은 나무의 높이는 7m 정도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는 유일한 왕벚나무 자생지로 현재는 철책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다. 왕벚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로서 그 수가 매우 적은 희귀종이므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고, 식물지리학적 연구가치가 크므로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 보호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들꽃학교 노교사, 교육 희망을 보다

들꽃 밭 거름 주던 날



내가 캐어 온 엉겅퀴와 할미꽃, 붓꽃은 햇빛을 탐하는 놈들이다. 그 놈들을 등교 길에 쭉 세워 놓은 암석 표본 근처에 심었다. 제법 키가 큰 회양목 그늘 바위 옆엔 처녀치마를 조심스럽게 심었다. 그리고 단풍나무 널찍한 그늘에도 여러 군데 구덩이를 파 두었다. 이곳엔 피나물이나 애기나리꽃 등 그늘에서 자라는 놈들을 심을 것이다. 이렇게 텃밭 둘레에 들꽃을 심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기다려야 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선 이미 이사장의 지시로 팬지꽃을 사다가 암석 표본 사이에 조르르 심어 놓았다. 황량한 봄이면 늘 하는 연중행사다. 아이들에게 밝은 마음을 심어 주자는 뜻일 것이다. 나 혼자 땀을 흘리면서 암석 사이에 심어 놓은 들꽃을 물끄러미 굽어보던 김종원 선생이 매점 옆에 거름이 있다고 하였다. 잘 됐다 싶어 가보니 칡덩굴이 덮고 매점에서 사용하고 버린 연탄재가 오래 묵어 곰삭은 거름이 되었다. 한 광주리 퍼다가 들꽃을 뽑고 거름을 넣은 뒤 다시 심었다. 좀 미안했다. 그리고 단풍나무 그늘에 파 놓은 구덩이 속에도 듬뿍듬뿍 거름을 넣었다. 날도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혼자서 스무 개가 넘는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승희, 너 잘 만났다. 왜 안 오고 도망만 가는 거야. 오늘 거름 좀 나르자."

"예, 좋아요. 도와 드릴게요." 반가운 말이었다. 혼자서 거름을 옮기다가 마침 집에 돌아가던 승희와 그 친구들을 만났던 것이다. 같이 다니는 친구 둘과 함께 긴 플라스틱 화분에 퍼주는 거름을 날랐다. 예민한 여자 아이들이 고약한 냄새에 이맛살을 찡그렸지만, 그래도 아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엄마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줄달음질친다는 생각이 들어 불쌍하였다.

이상하게 열린 수업을 하면 할수록 그게 불안한지 부모들은 더 극성스럽게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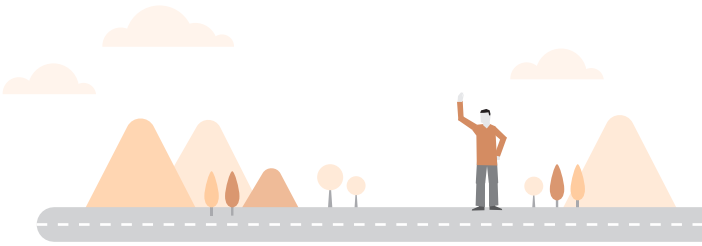
그렇게 그 날 오후 내내 구덩이 속에 거름을 넣은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우리 나비 박사님 김종원 선생의 충고 때문이었다. "산에 가 봐. 풀들이 자라는 곳에 낙엽이 얼마나 쌓이고 썩어서 비옥한지… 그래서 학교에도 낙엽을 긁으면 안 된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이제 알 만해?" 그랬다. 평내, 내가 살던 곳 뒷산에도 은방울꽃이 층층이 썩은 낙엽송 솔잎 가루 위에서 떼지어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 들꽃을 심을 곳에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넣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김 박사에게 자주 핀잔을 들었다. 한번은 내가 "자, 실험실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연구해 봐!" 했더니, 김선생은 "자연이 곧 연구실인데 뭐. 원래 그대로 좀 놔 둬. 못살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받아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김 선생과 나는 미주알고주알 하며 20년 가까이 다퉜다. 그는 생물 선생이고 나는 국어 선생이니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다. 사실 꽃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면은 그에게 배울 만한 점이 많지만, 장미와 관련된 문화 신식민지 같은 문제는 내가 할 말이 좀 더 많다.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꽃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장미라고 하는데, 장미가 서양에서 개량한 꽃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장미의 할머니가 들장미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찔레와 비슷하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더욱 드물다. '우리들이 언제부터 장미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마치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가급적이면 서양 기준에 맞는 미인을 뽑는 것과 비슷하다. 백인 우월주의와 서양 문화의 침식은 어느새 미의 기준까지 그들 구미에 맞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꽃에도 식민지가 있는 것이다. 무서운 것은 그 바탕에 경제적인 수탈이 도사리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지나치는 것이 어디 이뿐이랴.

자꾸만 서양 문명, 물질, 성장 쪽으로만 달려가면서 우리들과 아이들은 무엇을 잃어 버렸을까? 성적 대신 말이다.

글. 이원구

2015년 생명의숲 회원활동모임 이야기



생명의숲은 회원이 주축이 되는 회원운동을 꿈꿉니다. 올해 더욱 활발해질 회원활동모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온숲 – 우리는 숲에서 이러고 놀아요.

'라온'은 순 우리말로 '즐거운' 이라는 말입니다. 라온숲은 13년 전 생명의숲에서 낳은 숲해설가들의 자원활동 모임입니다. 라온숲은 홍릉숲, 학교숲, 생태산촌, 사회복지숲, 청소년숲교실, 성미산모니터링 · 숲가꿈이 · 생태체험교실, 나무심고 가꾸기, 희망목공교실, 숲유치원 등 생명의숲의 다양한 숲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라온숲은 남산에서 서울초록숲길의 시민참여프로그램인 '라온숲과 함께 남산 숲길 랄랄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코스로 진행되는데요, 남산의 서쪽 버티고개 코스에서는 숲가꾸기와 자연놀이로 가족과 함께 생태를 이해하고 보살피며 즐겁게 가족들과 소통하는 '버티고개 한바탕'이, 국립극장에서 N타워를 향해 성곽을 끼고 트래킹하는 코스인 '라온 오솔길 랄랄라~'는 역사와 문화, 생태의 어울림을 느림의 미학으로 체험하고, 남산 남측 소나무단지에서 진행되는 힐링코스인 '솔향기 속 오감만족'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내면의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숲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회원님들! 남산 숲길에서 역사와 문화와 풀, 나무와 작은 숲속 생물들과 이야기 나누며 랄랄라~ 노래하고 트래킹하는 즐거움을 기억하세요. '라온숲과 함께 남산 숲길 랄랄라~'에서 만나요~

생명의숲을 더욱 푸르게 하는, 회원기자단

'(사)생명의숲이 우거지는 일에 작지만 큰일들을 해낸다.'는 자부심으로 만나고 있는 곳이 회원신문 '숲과 사람들'의 회원기자단입니다. 격월로 간행되는 '숲과 사람들'은 생명의숲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편집하는 신문으로 전국의 회원들에게 배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않고 직접 취재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고마감에 쫓기면서 회원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기도 하며 생명의숲을 더 푸르게 가꾸고 싶은 것입니다. 기자단은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회원들이 나서서 봉사해 줄 수 있다면 더 활기찬 '생명의숲'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회원기자단과 동행하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작지만 귀한 신문을 만들어낸 보람을 얻게 되며, 더 넓은 숲을 바라보는 시야를 얻게 됩니다. 회원기자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하며 특별한 보람을 제작함으로써 더욱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사회공헌이 아닐까요?

전국의 많은 생명의숲 회원들이 서슴없이 글을 전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 함께 더불어 노력하겠습니다.

식물을 사랑하고 알고 싶어 하는, 숲누리식물교실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 이라고 할까요? 채집에서 파종까지 식물을 재배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기도 합니다. 4월에 진행된 공개강좌 〔먹거리로 본 식물 분류의 세계〕도 그 결과의 산물이기도 하지요. 밥상에 올라와 아무 생각 없이 "참 맛있다!"에만 열중한 우리의 식탁 모습에서 "왜?"를 접목 시켜 보니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풀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식물들의 속살은 어떤 모양인지? 그것들이 왜 그렇게 생겨야만 하는지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하고요. 올해에는 씨앗과 모종을 분양해 각자 조금씩 키우며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답을 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유종아회원이 제안한 '성전환 하는 식물의 성장과정에서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재미있겠지요? 남의 집 사생활 들여다보면 내 삶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식물의 사생활은 어떤 변화와 적응을 해왔는지 같이 들여다보지 않으실래요? 5월에는 석창포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해 오신 임영재회원의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답니다. 5월! 함께 하시면 석창포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답니다.

건강한 숲공동체를 이어갈 이돈구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2015년 봄, 생명의숲에 큰 변화가 있었다. 생명의숲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이돈구 영남대 석좌교수가 제18차 정기총회에서 생명의숲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교수로, 산림청장으로 오랜 시간 숲과 함께 해온 이돈구 이사장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 시간을 작은 지면에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가려고 한다.

생명의숲 회원님들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충북 청주의 농촌지역으로 감나무, 도토리나무 등이 많은 동네에서 태어나 살아왔으니 언제나 산, 논, 밭은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나무는 친구 같은 존재로, 1965년부터 산림학을 접하고 이 분야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전문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에서 조림학, 복원생태학 분야를 강의하였고, 교수정년 2년 전에 정부에서 산림행정을 총괄해 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생명의숲 명함에는 좋아하는 나무 혹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나무가 표기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소나무와 참나무를 선택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나무와 참나무는 우리나라 땅의 근본 토착 수종이며 가장 보편적이어서 좋아합니다.

숲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65년 대학에 입학하여 산림학을 공부하면서 숲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고등학교 때 물리반이라 공과대 진학을 생각했으나 주위 선배들이 산림분야가 미래는 좋다고 권유하여 방향을 바꿨습니다. 생물학을 싫어했던 저는 결국 생물분야에 속하는 산림학분야의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숲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98년 생명의 숲이 탄생할 때부터 참석하였으나, 제 자신이 시민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적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북한 및 동북아 지역의 숲을 복원하자는 '동북아산림포럼'이 시작되면서 더욱 숲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숲 초창기와 지금의 생명의숲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초창기에는 산에 조성된 숲을 가꿔서 숲의 질이 개량되었고 일자리를 제공해 일거양득 (一擧兩得)의 효과를 거두어 국민적, 국가적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산에 가는 일보다 도시민과의 만남의 장인 도시숲(공원, 가로수, 하천 등)에서의 활동이라 친근감이 더 많이 형성되었죠. 이와 같은 숲 운동으로 숲 해설가, 숲 유치원, 숲치유지도사, 나무의사 등의 직업도 생겼습니다.

좋아하는 숲이 있다면 회원님들께 추천해주세요.

광릉 숲, 대관령 소나무숲, 가리왕산(중왕산) 숲, 울진 소광

리숲, 강진 초당숲, 광양 추산에 위치한 테다소나무 숲, 제주도 사려니숲,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가평 잣나무숲, 무주 독일가문비숲 등을 추천합니다.

국제협력 활동을 계속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명의숲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제가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IUFRO, 1892년 시작)의 이사, 부회장, 회장, 직전회장 등 19년 (1996~2014)간 활동하면서 우리의 숲을 알리며, 또한 120여 국가의 숲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명의숲도 IUFRO 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시아지역 숲 운동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이사장님이 추천한 숲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궁금해진다. 회원님과 함께 두고두고 가보고 싶다. 인터뷰를 정리하며, 이돈구 이사장님의 숲과 함께 한 오랜 시간이 생명의숲에서 잘 녹아나 건강한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숲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활동을 기대해 본다.

Interviewer 생명의숲 활동가 오주영

나무야 고마워, 트리허그(Tree Hug) 캠페인을 다녀와서

저는 주말 내내 대청소와 불필요한 물건들 정리를 마치고 이 글을 적습니다. 지난 3월 21일 맑은 날 국립수목원에서 Tree Hug 세계기네스북 도전에 참가했던 경험을 되새겨 봅니다. 나무 한그루를 나의 온몸으로 1분간 꼭 안아주는 트리허그. 처음 낯선 느낌은 나무를 안는 연습을 통해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오롯이 혼자 묵묵히 견뎌내는 나무들을 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나에게 맞닥뜨린 여러 상황들을 견뎌내야 하는, 버텨내야 하는 것에 대해 나무는 제게 말없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덜어내 버린 나무. 다가오는 봄을 위해 새싹을 준비하는 나무를 안았습니다. 욕망만을 쫓기 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생활에 대해 나무에게서 배우고 왔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며 앞으로는 나무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생명의숲 회원님들과의 행복한 숲기행을 기다리며 다시 나무를 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은숙 회원

산림청에서 주최했던 나무안아주기 세계기네스북 도전에 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기록 달성을 성공했다고 해요. 생명의숲도 회원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특히 최은숙 회원님은 트리허그 행사가 끝난 후 숲 구석구석을 다니며 행사용 비닐끈을 제거하는 자원봉사를 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숲을 아끼는 마음, 역시 생명의숲 회원님 입니다!

생명의숲과 함께 보내기

생명의숲 시민참여 프로그램

박상진 교수와 함께 하는 궁궐과 왕릉의 나무이야기

내용_ 궁궐과 왕릉의 문화 · 역사를 담고 있는 나무들을 만나는 시간
장소_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대상_ 일반시민 선착순 30명
신청_ 생명의숲 홈페이지에서 회차별 신청 www.forest.or.kr
세부일정_
The 2nd 조선의 첫 번째 정궁, 경북궁의 나무
6/20(토) I 경복궁
The 3rd 조선의 마지막 궁궐, 창덕궁의 나무
9/12(토) I 창덕궁
The 4th 여인의 궁궐, 창경궁의 나무
10/17(토) I 창경궁
The 5th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의 능, 선릉
11/7(토) I 선릉

숲과 삶을 잇다, 숲문화아카데미

일시_ 4월~10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
장소_ 생명의숲 4층 부피에룸
대상_ 일반시민 선착순 30명
내용_

회차	장소	집결장소
시 속의 나무	시인 윤효	5/22
꼭 가봐야 하는 세계의 식물원	신구대학교 김인호	6/17
재미있는 버섯 이야기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영준	7/15
미술작품에서 만나는 나무	탑골미술관 큐레이터 정희정	9/16
작은 숲 이야기(가드닝)	건국대학교 박신애	10/21

숲과 삶을 잇다, 생명의숲 기행

아빠와 함께 가을숲으로 떠나는 여행 : 9월 I 문경새재 숲길
안개와 바람, 구름이 만든 숲을 찾아서 : 10월 I 주왕산국립공원

성미산에서 만나요

숲가꿈이 자원활동
시기_ 매주(토) 오전10시-12시
대상_ 청소년 및 성인
신청_ 나눔포털 www.1365.go.kr

숲속 생태 체험교실
시기_ 매주(목) 오전10시-12시
대상_ 초등 저학년, 유아와 부모님
신청_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성미산 검색)

초록숲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동네 백련산지기
장소_ 서대문구 백련산
대상_ 지역주민 10명
세부일정_ 지속성을 가진 생태감성체험 프로그램
문의_ 물푸레생태교육센터 070-8863-9400

성수동, 서울숲에 물들다
장소_ 성동구 서울숲
대상_ 소통하는 숲(시니어), 공감하는 숲(전업주부)
공유하는 숲(직장인)
문의_ 사회적기업 숲자리미 02-465-5591

따로 또 같이 곤충교실
장소_ 도봉구 초안산
대상_ 아동 및 성인 대상
문의_ 숲이야기 010-8001-6865

라온숲과 함께 남산숲길 랄랄라
장소_ 서울시 남산 일대
대상_ 남산숲길 탐방객 대상
세부일정_ 숲체험, 자연놀이를 통한 힐링
문의_ 생명의숲 라온숲 010-3739-0127

2015년 생명의숲의 새로운 얼굴, 신입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 **박승혜 참여의숲팀 • 회계 담당**

처음 뵙겠습니다, 3월부터 생명의숲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박승혜 활동가입니다. 처음 생명의숲에서 활동하게 되어 아직 미숙하지만, 이전처럼 자연과 숲을 소중히 해야지 하는 의식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직접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이 시간이 소중하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숲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김지미 동행의숲팀 • 숲교육 담당**

두 발이 딛고 있는 폭신한 흙으로부터, 나무줄기를 기어가는 작은 벌레로부터, 그리고 숲의 지붕을 자신의 세계로 만들어 버린 새의 지저귐으로부터.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건 없다지만 숲을 찾은 날이면 어김없이 기쁨과 희망이라는 공짜 선물이 양손 가득입니다. 회원 분들에게 처음 드리는 인사네요. 안녕하세요. 3월부터 생명의숲 동행의숲팀에서 일하게 된 신입활동가 김지미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과 숲의 선물을 나누며 더 큰 기쁨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숲으로의 동행, 함께 하실래요?

❖ **오주영 참여의숲팀 • 온라인 홍보 담당**

반갑습니다. 3월 중순부터 생명의숲과 함께 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오주영입니다. 한 달 넘는 시간을 지내며 숲과 사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누리기만 했던 숲이 가꾸고 보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 지금 이 순간도 모르고 지나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의숲에서의 시간을 잘 채워가겠습니다.

❖ **김우찬 생명의숲연구소**

안녕하세요. 3월 중순부터 생명의숲과 함께하고 있는 김우찬이라고 합니다. 땅을 파고 회색의 콘크리트와 파이프를 매설하고 설계했는데, 이제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또 산과 숲을 거닐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동안 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지만, 새로운 길의 방향을 잘 잡은 듯합니다. 앞으로 생명의숲과 함께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숲, 나무, 자연과 함께 일하며 받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광민 더불어숲팀 • 경의선 숲길 담당**

안녕하세요. 4월부터 생명의 숲에서 청년활동가로 일하게 된 박광민입니다. 나무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유쾌한 청년입니다 :) '간디의 물레'를 읽고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생명의숲까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직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숲과 나무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온유'한 분위기라고 느꼈습니다. :)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 생명의숲 구성원들과도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진한 꽃향기 흩날릴 때 생명의숲 한번 더 기억하기

한 그루 나무가 되어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 후원회원 명단은 4월 24일까지의 입금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참여의숲팀(02-499-6198)으로 연락주세요!(^^)

후원회원 명단

(유)거산 (주)사람과쉼(김미경) 가람가구학교(김성수) 강경호 강경희 강광석 강교영 강금비 강덕원 강동원 강동환 강미진
강민경 강민철 강서병 강선옥 강선희 강성용 강수진 강숙경 강승희 강신도 강양호 강연아 강영란 강영부 강영순 강영식 강영애
강영진 강웅비 강윤선 강은만 강재신 강정빈 강재신 강종인 강지혜 강진솔 강진형 강충근 강태희 강혜숙 강혜순 강환보 강흥실
경현정 고경희 고대하 고동석 고병국 고선심 고수미 고영곤 고영삼 고유정 고은경 고은빛(홍은정) 고은선 고은설 고정호 고태경
고현승 고현주 고현희 공감대화모임(고현희) 공유택 곽노행 곽상준 곽새별 곽영미 곽종일 곽 현 곽현우 곽현택 구명진 구반회
구본철 구세우 구안나 구자일 구진영 권기홍 권보경 권연조 권오경 권오분 권용은 권유현 권은숙 권정혜 권정희 권준영 권진아
권철현 권헌옥 권혁신 권혁진 권혜선 기경임 기다은 길준호 길홍덕 김가혜 김경남 김경범 김경수 김경수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아 김경옥 김경옥 김경옥 김경윤 김경일 김경하 김경훈 김경희 김관식 김광수 김광숙 김권율 김귀희 김규완 김금애 김금희
김기림 김기원 김기현 김길례 김낙식 김낙중 김난희 김남기 김남진 김남홍 김남희 김대희 김대희 김덕년 김덕진 김도현 김동민
김동범 김동연 김동엽 김동철 김리나 김만홍 김말순 김명구 김명상 김명수 김명순 김명옥 김명은 김명진 김명진 김명환 김명희
김문기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송 김미수 김미순 김미순 김미연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정 김미형 김민경 김민선 김민성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범석 김범주 김변주 김병섭 김병희 김보현 김복례 김복선 김복숙 김삼용 김삼진 김상범 김상우 김상우
김상종 김상현 김상현 김상희 김생환 김서운 김석구 김석권 김석원 김석진 김선규 김선미 김선예 김선태 김선화 김선휴 김선희
김 성 김성대 김성동 김성동 김성만 김성목 김성은 김성인 김성일 김성자 김성진 김소연 김소형 김소희 김솔이 김수미 김수미
김수열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환 김숙희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순자 김순자 김순진 김순희 김승동 김승순 김승윤 김승환
김신범 김신의 김신자 김신호 김양숙 김여선 김연수 김연실 김연중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기 김영록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신 김영안 김영일 김영종 김영진 김영천 김영환 김영희 김예린 김예영 김옥등 김옥숙 김옥순 김옥현 김외수 김외정 김용각
김용경 김용근 김용범 김용석 김용순 김용욱 김용진 김용표 김 우 김우찬 김우철 김욱자 김원주 김유리 김유미 김유민 김유정
김유탁 김윤균 김윤영 김윤정 김윤정 김윤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교 김은기 김은민 김은선 김은숙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혜 김의경 김의식 김의향 김 인 김인애 김인호 김일석 김자영 김재준 김재현 김재형 김재흥 김 정 김정렬
김정미 김정미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식 김정아 김정아 김정웅 김정은 김정현 김정호 김정훈 김정희 김종구 김종률
김종욱 김종화 김종회 김종훈 김주미 김주영 김준영 김준환 김지관 김지연 김지원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배 김진석 김진성
김진숙 김진연 김진우 김진우 김진웅 김진주 김진중 김진형 김진희 김진희 김찬성 김찬수 김찬숙 김찬우 김찬주 김창배 김창옥
김창환 김천규 김천명 김천숙 김천화 김철민 김철영 김초영 김춘수 김춘애(성심어린이집) 김춘자 김충호 김치환 김탁현 김태룡
김태영 김태원 김태유 김태중(조은날) 김태진 김태진 김태후 김태희 김태희 김하늘 김학용 김한동 김한석 김한수 김향선 김헌숙
김 혁 김현기 김현대 김현돈 김현미 김현숙 김현숙 김현옥 김현좌 김현주 김현탁 김형곤 김형미 김형배 김형섭 김형수 김형진
김혜숙 김혜숙 김혜숙 김혜영 김혜원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호수 김홍대 김홍재 김효남 김효신 김효은 김 훈 김희나 김희발
김희영 김희인 김희중꿈어린이집 나경숙 나영성 나옥실 나정미 나창호 나현민 나현정 남강택 남광희 남상용 남수경 남은정
남택호 남화여 노경애 노국환 노상은 노성란 노순미 노순자 노승희 노영숙 노은주 노은주 노주희 노준호 노하은 노화욱
농촌생활목공센터(이중희) 도순아 도재영 류경미 류경숙 류광수 류기형 류부열 류양선 류연기 류준모 류준하 류춘희 류택규
류해찬 마상규 명진숙 모미숙 모연주 문경민 문봉균 문수언 문영규 문영남 문영선 문영성 문영인 문유정 문윤희 문인영 문일성
문장혜 문진우 문형봉 민경욱 민경일 민경자 민경택 민규리 민덕홍 민선조 박강태 박 건 박경서 박경태 박경희 박경희 박관순
박관영 박관우 박광렬 박군숙 박귀란 박근덕 박기수 박기화 박나연 박노호 박대훈 박동식 박두선 박래필 박말선 박명선 박문선
박미경 박미경 박미선 박미애 박미영 박민우 박병국 박병희 박보강 박복조 박삼봉 박상규 박상규 박상길 박상만 박상신 박상아
박상인 박상준 박상진 박서진 박석원 박선섭 박선영 박선희 박성관 박성동 박성현 박세영 박세정 박소연 박소현 박수운 박수일
박숙녀 박숭호 박승원 박시내 박신정 박신정 박아로아 박양호 박여숙 박연정 박영부 박영석 박영석 박영수 박영옥 박영우 박영웅
박영일 박영준 박영희 박영희 박옥규 박용선 박용진 박원규 박유준 박윤정 박윤주 박은경 박은선 박은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진
박은희 박응우 박인옥 박인호 박일종 박임자 박장환 박재영 박재옥 박재현 박재환 박점숙 박정미 박정애 박정우 박정우 박정은
박정희 박정희 박종길 박종순 박종호 박종화 박종희 박주리 박주애 박주원 박주현 박준석 박준영 박중언 박지연 박지영 박지웅
박지현 박지훈 박진선 박진옥 박진호 박찬열 박찬은 박찬희 박철욱 박충선 박향숙 박현서 박현숙 박현정 박형건 박형근 박혜란
박혜숙 박혜정 박홍철 박환용 박효진 박후서 박희우 방미숙 방미애 방석진 방애림 방에스터 방영미 방영숙 방완수 방재숙 배말금
배선옥 배소영(김미라) 배 숙 배영지 배원경 배은경 배은영 배정현 배종원 백공열 백상윤 백선길 백순란 백승미 백운학 백은희
백인석 백정희 백종민 백종철 백철기 백현석 백혜숙 변가혜 변계훈 변재상 변준섭 변한주 변향영 변현숙 복세원 복종경 빈남옥
사근숙 사지원 서경미 서경전 서덕순 서동희 서문홍 서미경 서민정 서봉균 서봉석 서범선 서삼선 서삼선 서상한 서승목 서영삼 서영희
서영희 서원식 서윤애 서은석 서은주 서은진 서정아 서한교 석상열 성규철 성규홍 성미주 성백선 성순준 성연수 성윤미 성주인
성필선 성효인 소명준 소미현 소영남 소정원 소종석 소종섭 손경희 손기연 손기원 손기철 손무원 손승우 손영란 손재진 손정경
손정아 손철호 송가형 송경림 송근우 송남근 송명희 송미현 송민숙 송민영 송석병 송선자 송수진 송윤정 송은정 송인섭 송인주
송정순 송정희 송지은 송현진 스카이치과 시원혜 신경란 신경준 신광일 신금랑 신기수 신기황 신나리 신동섭 신동호 신민영
신민정 신상철 신선문 신선미 신수근 신수안 신순애 신순주 신승재 신애라 신연숙 신 영 신영보 신영삼 신영은 신영희 신용란
신우진 신욱인 신 웅 신유나 신윤정 신은경 신은지 신의희 신자영 신재우 신주영 신주환 신준환 신지원 신창기 신충호 신항식
신해영 신현승 신현주 신현팔 심경미 심선옥 심순희 심영권 심우갑 심재군 심재영 심재희 심전섭 심태욱 심형준 안경근 안광원
안민자 안민지 안병빈 안병춘 안병호 안부섭 안선경 안성은 안수정 안승숙 안영님 안영복 안은선 안은주 안정식 안종엽 안지연
안지용 안지혜 안태건 안태상 안 현 안혜진 안호기 안호진 안효숙 안희경 안희진 양경모 양길승 양병이 양석진 양성영 양승남
양승수 양예수 양윤정 양이석 양진희 양태인 양해경 양현숙 양혜화 양희연 엄수경 엄시현 여동미 여미화 여지은 염 건 염순영
염원일 염은영 염형철 엽정식 오강임 오경진 오동훈 오명훈 오미환 오민수 오범석 오성근 오세훈 오숙현 오영조 오원구 오원일
오은선 오정수 오창길 오창민 오충현 오형은 오혜선(권용호) 오희수 오희수 옥선자 온수진 온형근 왕규오 왕은숙 용환택 우명원
우상권 우수영 우연순 우정호 우종현 우중본 우지현 우지희 우창영 우헌영 우희경 우희정 원구연 원미현 원윤희 원종임 원지영
원화식 위영철 유경태 유계영 유두현 유리화 유병오 유서영 유선재 유성미 유성민 유성은 유순희 유승아 유승우 유시훈 유애순
유영갑 유영규 유영민 유원기 유은지 유재승 유재심 유정상 유정아 유주희 유중하 유지민 유지영 유지용 유지원 유진아 유해용
유효중 윤 각 윤경혜 윤경희 윤광수 윤근식 윤나희 윤남희 윤동열 윤말임 윤문선 윤미라 윤미란 윤병선 윤상우 윤석분 윤석원

윤석자 윤선아 윤선주 윤선희 윤성철 윤성현 윤세린 윤소원 윤수연 윤숙연 윤순환 윤여종 윤여진 윤여창 윤연숙 윤영균 윤영미
윤영옥 윤영주 윤영훈 윤자영 윤자희 윤장노 윤정숙 윤정순 윤정현 윤준민 윤지동 윤지연 윤 진 윤 진 윤차중 윤춘경 윤태윤
윤한별 윤혜영 윤혜정 윤희연 윤희연 은희경 이갑순 이강명 이강민 이강세 이강오 이강현 이경란 이경란 이경미 이경민 이경신
이경아 이경열 이경주 이경학 이경환 이경훈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고운 이광교 이국창 이근아 이금용 이기숙 이기승 이기현
이기혜 이나현 이낙원 이난영 이남선 이대건 이대근 이덕근 이덕용 이도한 이도희 이동고 이동열 이동우 이동준 이동철 이동춘
이동환 이두나 이득영 이 라 이 란 이리나 이만용 이만준 이명덕 이명동 이명섭 이명숙 이명진 이명채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경 이미란 이미선 이미숙 이미아 이미영 이민석 이민옥 이병함 이보미 이보연 이복만 이복주 이봉재 이사라
이상님 이상도 이상문 이상미 이상민 이상복 이상신 이상우 이상은 이상인 이상인 이상준 이상진 이상찬 이상헌 이상현 이상훈
이석재 이석현 이선경 이선길 이선화 이선희 이성아 이성우 이성운 이성재 이성환 이성희 이성희 이세영 이세현 이소리 이소민
이소연 이소현 이소희 이수경 이수연 이수연 이수용 이수원 이수정 이수현 이순애 이순영 이순혁 이순환 이승미 이승연 이승우
이승은 이승준 이승준 이승준 이승희 이아라 이양구 이연옥 이연원 이연휘 이연희 이 영 이영미 이영애 이영재 이영희 이영희
이예숙 이용구 이용권 이용성 이용직 이용훈 이우상 이원덕 이원미 이원숙 이유정 이윤승 이윤정 이윤주 이율리 이은기 이은미
이은선 이은숙 이은숙 이은실 이은욱 이은진 이은하 이응렬 이인선 이인숙 이일남 이임덕 이장춘 이재붕 이재석 이재성 이재성
이재식 이재영 이재영 이재원 이재원 이재준 이재진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심 이정아 이정우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종갑 이종민 이종섭 이종원 이종호 이주식 이주연 이주연 이주현 이주희 이준미 이중무 이지연 이지연 이지열 이지영 이지우
이지원 이지현 이지현 이지현 이진구 이진규 이진명 이진석 이진숙 이진숙 이진연 이진영 이창복 이창준 이철우 이철재 이춘희
이춘희 이충선 이태림 이태석 이태제 이한구 이한규 이한신 이행종 이향란 이향미 이향배 이현경 이현경 이현숙 이현아 이현임
이현호 이형옥 이형준 이혜민 이혜성 이혜수 이혜영 이혜영 이혜영 이혜은 이혜지 이호연 이호영 이호일 이호찬 이화선 이화진
이효수 이흥연 이희성 이희수 이희준 이희진 인은수 인창혁 임건웅 임경숙 임경순 임경철 임경희 임군자 임규영 임대성 임동준
임명철 임미경 임미정 임복규 임복희 임상섭 임상준 임선희 임성은 임성주 임성진 임성후 임수현 임영선 임영재 임옥남 임원택
임월연 임은미 임재우 임재훈 임정현 임종길 임종수 임종필 임종환 임중백 임지연 임현아 임현재 임현철 임형묵 임형진 임혜주
임효진 장광은 장남종 장대익 장 령 장 만 장미아 장미정 장석일 장석재 장순우 장승남 장영건 장영수 장영숙 장영실 장예령
장옥주 장우혁 장원영 장은영 장익순 장인수 장일식 장정욱 장정희 장 진 장진아 장창수 장태혁 장학영 장한빈 장행곤 장호찬
전경순 전경희 전국완 전병윤 전석연 전선영 전숙례 전순복 전영배 전영완 전영훈 전용관 전유경 전윤주 전은주 전의찬 전인하
전재숙 전지언 전지현 전지호 전지희 전필수 전현주 전형남 전혜자 정강훈 정경숙 정경희 정경희 정계임 정고은 정구갑 정규연
정달운 정대헌 정 란 정란아 정래영 정명숙 정명희 정미나 정미나 정미라 정미선 정미순 정미아 정미애 정미영 정미자 정민채
정병준 정선희 정성문 정성재 정송남 정수옥 정순화 정순희 정승준 정애자 정양희 정연경 정영란 정영옥 정영일 정영진 정옥연
정용록 정용숙 정용호 정우원 정유민정유진 정은수 정은연 정은영 정은희 정재규 정재영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주열 정주영
정지숙 정지영 정지용 정진영 정진영 정찬명 정찬미 정채율 정철호 정춘화 정태성 정태수 정택진 정하돈 정해욱 정 혁 정현경
정현규 정현진 정혜영 정혜주 정회식 정효진 정훈형 정 희 정희옥 정희정 정희정 조강희 조경숙 조경오 조경혜 조규남 조규식
조금선 조동업 조만희 조명현 조미애 조석호 조성숙 조성희 조순정 조순희 조신혜 조연순 조연희 조영래 조영미 조영중 조영철
조영희 조옥천 조용진 조운연 조유환 조윤숙 조은빛 조인규 조재형 조정윤 조정희 조제형 조준영 조찬수 조찬희 조치흠 조한식
조해영 조현자 조호석 조홍연 주경성 주경희 주만석 주복희 주소영 주원혜 주증원 주창호 주형선 주혜린 지나지산지옥영 지원희
지인구 지해근 진문석 진상현 진우석 진윤주 진은순 진하영 진현경 차승연 차유정 차윤정 차은주 차은지 차준희 차지철 채규선
채수명 채수정 채수진 채 일 채재선 채정원 채현순 채희옥 채희정 천각규 천경화 천민경 천승명 천향미 천희경 청파교회 최건애
최경아 최근홍 최기수 최동주 최동준 최명복 최명은 최문섭 최미숙 최미자 최미향 최병언 최상규 최성수 최성애 최세경 최소영
최소현 최수진 최숙경 최숙영 최순님 최순실(김정아) 최승갑 최승희 최여은 최연진 최영미 최영순 최영신 최영임 최영준 최영호
최영환 최예정 최용석 최용수 최용희 최웅찬 최원선 최윤정 최윤정 최윤종 최은경 최은미 최은비 최은숙 최은호 최재린 최재숙
최정식 최정실 최종걸 최준원 최진수 최진숙 최진현 최춘성 최태분 최태영 최필례 최하얀 최해정 최현미 최현미 최현섭 최현수
최현정 최현준 최호연 최홍석 최희선 추은영 추지석 추지희 태유리 편윤국 하나연 하 람 하상교 하세리나 하승미 하승훈 하시연
하용식 하정민 하지수 하태석 하헌신 하현수 한경석 한경석 한경석 한국환경교육연구소 한상민 한상욱 한상헌 한선규 한성신
한송이 한송이 한수현 한순아 한유경 한은주 한재숙 한재현 한재호 한점숙 한정민 한정연 한정옥 한주옥 한향규 한혜경 한희선
함순애 함재춘 함지영 함형복 함희숙 함희영 허근행 허남주 허상만 허안숙 허윤규 허 은 허진경 허학영 현경호 현승엽 현유진
현정오 현정훈 현철호 홍경자 홍대원 홍삼선 홍상기 홍석권 홍선기 홍성권 홍성민 홍성숙 홍소현 홍수연 홍수자 홍순동 홍영환
홍윤정 홍인숙 홍정순 홍주의 홍하표 황경택 황규분 황규현 황길식 황동규 황득주 황명숙 황봉규 황선영 황성빈 황세희 황수현
황순덕 황순일 황순진 황원회 황일순 황정연 황정하 황지영 황지현 황춘옥 황춘호 황혜경 황효심 황희정

연납부회원

강대찬 강석철 곽정수 구금순 권혜련 김광호 김근용 김동섭 김무창 김선아 김성열 김성택 김성훈 김승남 김영조 김영출 김용구
김원태 김윤기 김정기 김정년 김주현 김지한 김한담 김형규 김혜정 김홍연 김태진 문무철 문 인 문현채 민병준 박경숙 박근우
박문한 박문환 박백범 박상언 박순옥 박연화 박용희 박원철 박윤정 박재웅 박주현 박현태 박혜영 박혜영 박호진 배용래 백승주
백주열 서경석 서백영 서승진 서홍만 성주한 신경희 신미란 신서희 신은희 양순례 양완철 엄명숙 예견희 오경주 우보명 유근옥
유병배 유종아 유종호 유태환 윤상구 윤태병 이경숙 이경원 이경재 이돈구 이만재 이미정 이미정 이봉교 이선주 이성숙 이성식
이성우 이성일 이소령 이숙희 이순이 이순주 이승호 이영재 이용상 이용섭 이우진 이임영 이재룡 이정화 이준식 이창국 이청고
이충미 이현호 이희삼 임원애 임중섭 임하수 임혜미 임홍순 장미령 장성환 장진호 장평식 장현수 전혜민 정성빈 정승선 정완봉
정현주 조동길 조만환 조영숙 조용화 주용석 진선필 천문식 천세욱 최규복 최돈하 최상술 최성원 최승연 최연희 최영택 최은숙
최재영 최창진 표병혁 한충현 홍보영 황선애 황영심 황종각 황지숙 한국양묘협회

기업회원

(주)동심원조경 (주)대명화학 알앤비코(RNBco) (주)웰빙아이엔씨 (주)월송나무병원(김철응) (주)비코트리 한솔섬유주식회사
주식회사지앤푸드 (주)수프로 일송환경복원(주) 우신건업(주) 삼정KPMG 머스턴(박보강) (주)풀무원홀딩스서울지점 (주)자연과디자인
(주)에코펌 (주)신흥이앤지 (주)굿필코리아 유한킴벌리 LG상록재단 유한M&C(주) (주)유한양행 핀란디아 법무법인청목

평생회원

곽두일 권상진 김경일 김인식 김정균 김중곤 김태진 노만경 노영희 문국현 박미호 박예식 박창준 박필선 배상원
서현종(진원스님) 신문수 우종민 윤영각 이동진 이득우 이명주 이선민 이원화 임원준 전영우 전정일 조연환 조용성 조효봉
한경식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한승호

놀자! 숲에서... PlayForest 협동조합

숲에서 놀고싶은 사람 여기붙어라~

생명의숲에서 인큐베이팅한 PlayForest 협동조합이
2015년 3월 19일 창립하였습니다.

PlayForest 협동조합은..

숲길여행을 통해 사람(여행자)과 사람(안내자)을 연결하는 소셜트립플랫폼이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는 생태여행 전문 플랫폼입니다. 현지인이 안내자가 되어 지역적 경험과 열정을 나누고 여행자는 현지인 친구와 함께 여행하며 살아있는 경험을 갖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의 숲길여행을 제안합니다.

숲길안내자 조합원

나의집, 나의숲길
프로그램을
여행자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 숲생태여행 프로그램 등록 지원
- 여행진행을 통한 수익창출
- 여행자들의 리뷰를 통한 평가
- 숲생태여행 인증마크 발급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컨설팅 지원
-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조합원 등록 가능

PlayForest 플랫폼

안내자와 여행자를 이어주는 공간
숲길여행의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
숲생태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숲생태여행 서비스
  -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생태여행
  - "아름다운 숲"정보 및 여행 경험
  - 숨어있는 '국유림 여행' 콘텐츠
-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서비스
- 프로그램운영 아카데미 프로그램

숲길 여행자 회원

현지인 안내자 친구와 나만의
건강하고 색다른 여행을
시작합니다.

회원이 되면…

- 언제 어디서나 숲생태여행 정보 검색
- 중간거래를 최소화한 여행 직거래 서비스
- 원하는 지역 및 타입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쉽고 간편한 온라인 결제
- 개인, 단체, 누구나 회원 등록 가능

가입문의(조합원/회원)

연락처 010-9303-9627(박형민)/010-6338-7830(김정) **이메일** playforest.net@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playforestkor
주소 121-846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5 숲센터 5층

Play Forest

생명의숲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5 숲센터 5층 02-735-3232
홈페이지 www.forest.or.kr **메일** forestfl@chol.com **블로그** forestforlife.tistory.com **페이스북** /forestfl

발행처 생명의숲국민운동 회원활동위원회 **생명의숲 회원기자단** 임홍순(단장), 곽인호, 김경숙, 노병권, 류춘희, 박서영, 박혜련, 백선길, 안민자, 양종운, 우상권, 이경희, 이명덕, 이정명, 이흥연, 정희, 홍용식, 황지현 **자문**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